교회생활 안에서 교회생활을 위해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고 그리스도를 삶

(금요일 — 오전 2부 집회)

메시지 2

하나님의 건축물 안에서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기둥들이 되고 기둥 건축자들이 됨

성경: 마 16:18, 창 28:10-22, 잠 4:18, 왕상 7:17-20, 계 3:12

Ⅰ. 야곱의 꿈은 하나님의 갈망이 이 땅에서 집을 얻는 것이며, 그분의 의도가 부름받은 이들을 그분의 건축물을 위한 재료들인 돌들, 기둥들로 변화시키는 것임을 밝혀 준다 — 창 28:10-22, 마 16:18, 벧전 2:4-5, 계 3:12.

A. 창세기에는 두 종류의 기둥이 나오는데, 바로 수치심을 가리키는 소금 기둥(창 19:26)과 강한 건축물(왕상 7:21)을 가리키는 돌기둥이다(창 28:18, 35:14).

B.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은 빼앗는 사람이었지만, 48장에 올 때 이 빼앗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철저히 변화되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기둥이다 — 창 28:18, 22상, 비교 잠 4:18.

C. "이기는 이는 내가 나의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도록 하겠다. 그는 결코 나가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나의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나의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할 것이다." — 계 3:12, 비교 8절.

1. '되도록 하겠다(make)'라는 표현은 매우 의미가 깊다. 이것은 무언가가 되도록 조성하는 것, 곧 창조적인 방식으로 건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심으로써, 즉 우리의 타고난 요소를 가져가시고 그것을 그분의 신성한 본질로 대치하심으로써 우리를 기둥들이 되게 하신다 — 고후 3:18, 롬 12:2.

2. 이기는 이들이 성전에서 기둥들이라는 것은 그들이 삼일 하나님 안에서 기둥들일 것임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과 어린양'이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 계 21:22, 비교 시 90:1, 요 14:23.

Ⅱ. 야곱의 삶과 체험은 우리가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기둥들로 변화될 수 있는 길을 계시해 준다.

A. 우리가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의 긍휼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그분의 새로운 긍휼들을 누림으로써 긍휼과 존귀와 영광의 그릇들이 되어야 한다 — 롬 9:11-13, 16, 21, 23, 애 3:21-24.

B. 우리는 모든 것을 충족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그분을 누려야 한다 — 창 48:3, 17:1, 빌 1:19.

C. 우리는 우리의 생애가 끝날 때까지 그분의 끊임없는 목양을 누려야 한다. "오늘까지 일생 동안 저를 목양하신 하나님" — 창 48:15하, 계 3:8.

D.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창 32:30, 고후 3:18, 4:6-7),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시 27:8, 4), 우리의 봉사를 위한 공급인 그분의 얼굴을 누림으로써(출 25:30, 33:11상) 그리스도의 얼굴, 곧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후 2:10, 비교 13:14). 이것은 우리가 변화됨으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기 위한 것이다.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분배되실 때, 우리는 삼일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의 은혜로, 그분의 표정을 우리의 평안으로 갖게 된다(민 6:25-26).

1. 하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으로 조성되기 위해 하나님을 얻는 것과 동일하다 — 욥 42:5-7.
2. 하나님을 보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킨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우리 안으로 그분의 요소를 받아들이며 우리의 옛 요소는 배출되기 때문이다 — 고후 3:18, 롬 12:2.

E. 성경에서 기둥은 몸의 생활을 실행하는 가운데서 변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건축물의 표시, 곧 증거이다 — 창 28:22상, 왕상 7:15-22, 갈 2:9, 딤전 3:15, 계 3:12, 롬 12:2, 엡 4:11-12.
1. 창세기 28장 18절에 따르면, 야곱은 베개로 삼았던 돌을 취하여 그것을 기둥으로 세웠다.
a. 돌이 베개가 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체험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신성한 요소가 우리의 존재 안으로 조성되어 우리의 안식을 위한 베개가 되는 것을 상징한다 — 비교 마 11:28.
b. 베개가 기둥이 되는 것은 우리가 체험했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건축물인 하나님의 집을 위한 재료와 지탱하는 힘이 되신다는 것을 상징한다 — 왕상 7:21, 딤전 3:15.
2. 성전의 기둥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놋으로 건축되었다 — 왕상 7:14-15, 비교 요 3:14.
a. 하나님께 유용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으면서, 자신이 육체 안에 있는 사람이고, 죽고 장사되는 것 외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 시 51:5, 출 4:1-9, 롬 7:18, 마 3:16-17.
b.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힐 자격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우리가 지금 어떤 존재이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며,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수고하는 것이다 — 고전 15:10, 갈 2:20, 벧전 5:5-7.
c. 믿는 이들 가운데 분열과 열매 없음, 이 두 가지가 있는 이유는 놋, 곧 하나님의 심판에 속한 것이 전혀 없고, 반대로 교만과 자기 자랑, 자기변호, 자기 정당화, 자화자찬, 자기변명, 스스로 의롭다 함, 다른 사람들을 목양하고 찾는 대신에 그들을 유죄 판결하고 규제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 마 16:24, 눅 9:54-55.
3. 성전에 있는 기둥들의 기둥머리 위에는 '바둑판 모양(격자 모양)으로 얽힌 그물과 사슬 모양의 화관이 있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건축물의 기둥들인 사람들이 생활하며 책임을 지고 있는, 복잡하고 얽혀 있는 상황을 상징한다 — 왕상 7:17.
4. 기둥머리 위에는 백합화들과 석류들이 있었다 — 왕상 7:18-20.
a. 백합화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생활, 곧 우리의 어떠함에 의해 살지 않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떠함에 의해 사는 생활을 상징한다. 놋은 '내가 아니요'를 의미하고, 백합화는 '오직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 아 2:1-2, 마 6:28, 30, 비교 고후 5:4, 갈 2:20.
b. 기둥머리의 화관에 있는 석류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풍성의 충만, 풍부함과 아름다움, 그리고 표현을 상징한다 — 왕상 7:20, 비교 빌 1:19-21상.
c. 그물망에 의해 제해지고 사슬에 의해 제한받는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수하고 단순한 생활을 하여,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그리스도의 신성한 생명의 풍성을 표현할 수 있다.

F. 영적인 의미에서 기둥머리의 두 공은 증거(숫자 2)를 의미하며, 또한 이것은 자신을 하나님의 심판(놋) 아래 두고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자신에 의해 살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 살기 때문에(백합화들), 부활의 과정으로 말미암아(높이가 삼 규빗인 기둥머리의 받침) 복잡하

고 얽혀 있는 상황의 한가운데서(격자무늬와 사슬 모양) 완전하게(숫자 10) 책임(숫자 5)을 질 수 있으며, 신성한 생명의 풍성(석류)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Ⅲ. 성전 건축자인 솔로몬은 그리스도의 예표이고(마 12:42), 기둥 건축자인 히람(왕상 7:13-15)은 신약의 은사 있는 사람들의 예표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한다(엡 4:8, 11-12, 16).

A. 건축의 일이 솔로몬에 의해 직접 이루어지지 않고 히람을 통해 솔로몬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교회를 건축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사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를 건축하신다는 것을 가리킨다.

B. 역대기하 2장 14절은 히람의 어머니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이라고 말한다. 단 지파는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고 하나님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게 한 지파이다(창 49:17). 히람의 어머니가 단 지파 출신이라는 사실은 모든 사람의 기원과 마찬가지로 히람의 기원이 죄였다는 것을 가리킨다(시 51:5, 비교 요 8:44상).

C. 히람은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며 놋쇠 대장장이이다.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다' — 왕상 7:14.

1. 히람이 부활의 지파, 곧 변화의 지파인(창 49:21) '납달리 지파'에 속한 사람이 된 것은(왕상 7:14) 하나님의 건축물의 일부가 되고 그것을 건축하는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거듭나고 변화됨으로써(벧전 1:3, 고후 3:15-18) '단 지파'에서 '납달리 지파'로 옮겨져야 한다는 것을 상징한다.
2. "납달리는 풀어 놓은 암사슴이다. 그가 아름다운 말을 한다." — 창 49:21.
   a. 암사슴은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이다 — 합 3:17-18.
   b. 하박국서 3장 19절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암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라고 말한다.
   c. '새벽의 암사슴'은 또한 시편 22편의 제목에 언급된다. 이 시편은 부활 안에서 교회를 위하시는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시 22편, 히 2:12, 아 2:8-9). 납달리 지파는 거듭나고 변화된 사람, 곧 하나님을 신뢰하고 높은 산 위를 다니며 교회생활을 위해 부활 안에 사는 사람을 상징하는 암사슴 지파이다.
   d. 납달리는 갈릴리 땅에 있었으며(마 4:15), 첫 번째 사도들 무리는 갈릴리 출신이었다(행 1:11). 이러한 갈릴리 사람들에게서 나온 아름다운 말들은 생명의 말씀(5:20), 은혜의 말씀(14:3), 구원의 말씀(13:26), 지혜의 말씀(고전 12:8), 지식의 말씀(8절), 건축하는 말씀(행 20:32)이었다.
3. 두로는 상업으로 잘 알려진 이방인의 도시였다. 따라서 두로는 사탄과 하나였다 — 겔 28:12, 16.
4. 히람의 아버지는 놋을 다루는 히람의 기술의 근원이었다. 그러나 히람의 아버지는 죽었고, 그 결과 히람의 존재의 근원인 그의 어머니는 과부로 남겨졌다.
   a. 이것은 하나님의 거처인 교회 건축을 위해 하나님께 유용하려면, 우리가 세속적인 학문과 기술을 습득해야 하지만, 반드시 이러한 것들의 근원인 우리의 '두로' 아버지를 죽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b. 더 나아가, 우리의 '단 지파' 어머니는 반드시 과부가 되어야 하고(세상적인 근원에서 분별되어야 하고), 우리는 반드시 변화의 지파인 '납달리 지파'에 속해야 한다.

c. 이와 같이, 우리는 계속해서 학문과 기술을 갖고 있지만 그 근원은 갖고 있지 않고, 우리의 존재(어머니)는 더 이상 우리의 세상적인 기원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우리는 부활 안에 있다. 모세와 사도 바울은 이러한 원칙의 뛰어난 본이다.

D. 히람은 두로에서부터, 성전이 건축되어야 할 장소인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왕에게로 인도되었다(왕상 7:13-14). 예루살렘은 교회를 예표한다.

1. 오늘날의 솔로몬(그리스도)과 하나님의 현재의 건축물은 둘 다 교회 안에 있다.

2. 따라서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하나님께 유용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세속적인 기술을 습득해야 하고, 부활 안에 살아야 하며, 합당한 터 곧 교회의 터로 와야 한다 — 계 1:10-11.

Ⅳ.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기둥들과 기둥 건축자들을 얻으시는 것이다. 이러한 필요가 충족되려면, 우리 모두가 반드시 주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주님, 당신의 건축물을 위해 저를 기둥과 기둥 건축자가 되게 하소서."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오늘날의 벧엘 안에 있어야 할 필요성

우리가 기둥들이 되기 위해 주님께 진지하다면, 우리는 오늘날의 벧엘이 어디에 있는지를 반드시 발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릇된 곳에서 올바른 것을 찾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천주교나 교파들이나 은사주의 운동이나 자유 단체에 머물러 있다면, 기둥들로 온전하게 되기가 불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말을 하는 우리가 좁은 마음을 갖고 있거나 시야가 좁다고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오늘날의 벧엘, 즉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건축물 안에 있는 기둥들이 되게 할 수 있는 다른 곳은 없다. 다른 곳에서 온전하게 된 기둥들은 하나님의 건축물인 벧엘을 위한 기둥들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위한 기둥들이다. 지난 수 세기를 통하여 어떤 영적인 거인들은 교파나 선교 분야나 특정한 운동을 위한 기둥들이 되도록 온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러 해에 걸쳐 관찰한 바에 따르면, 나는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밖에서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하여 온전하게 된 기둥들을 보지 못하였다. 우리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기둥들이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참된 기둥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그러한 기둥들이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건축물, 즉 오늘날의 벧엘이 어디에 있는지를 질문해야 한다. 우리는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개인적인 간증

1933년에 나는 나의 직업을 내려놓고 주님을 전시간으로 섬길 부담을 주님으로부터 받았고, 심지어 전시간으로 섬기도록 주님에 의해 강권되었다. 나는 성경 학교나 신학교에서 공부하지 않았다. 그 당시 나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주님께서 나의 직업을 내려놓는 것에 대하여 나를 다루고 계셨을 때, 나는 삼 주 동안 잘 먹을 수도, 잘 잘 수도 없었다. 주님을 전시간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나의 믿음을 최대한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러나 나의 주변 환경을 볼 때 이 결정을 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나는 나의 생활을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지 정말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결국 나에게는 직장을 내려놓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었다. 이 결정을 내린 후, 나는 니 형제님에게서 짧은 편지를 받았다. 이 편지에서 니 형제님은 "위트니스 리 형제님, 형제님의 장래에 대하여 나는 형제님이 모든 시간을 드려 주님을 섬겨야 한다고 느낍니다. 그것에 대하여 형제님은 어떻게 느끼는지요? 주님께서 형제님을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했다. 이 편지는 1933년 8월

17일에 쓰였는데, 이날은 내가 주님과 직업을 내려놓는 문제로 다투고 있던 삼 주간의 기간이었다. 이것은 나에게 강한 확증을 주었다. 비록 나는 회사를 그만두었지만, 나에게는 믿음이 적었다. 나는 여전히 내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는지를 의심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에 니 형제님에게서 편지가 온 것이다. 그것을 읽은 후, 나는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는 니 형제님을 찾아가서 왜 형제님이 그때 제게 그 편지를 썼는지 알아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생각 속에 이런 목적을 품고 니 형제님을 방문하러 상하이로 갔고, 니 형제님은 나를 그의 손님으로 맞아 주었다. 나는 몇 달 동안 니 형제님과 함께 머물면서 그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물론 나의 첫 질문은 그가 왜 8월 17일에 그 편지를 보냈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는 내게, 그가 탄 배가 지중해에서 중국으로 향하고 있었을 때 홀로 선실에 조용히 앉아 중국에서의 주님의 움직임을 위하여 기도할 부담을 가졌었음을 내게 말해 주었다. 그가 기도하고 있는 동안, 주님은 나에게 그 편지를 써야 한다는 것을 그에게 알려 주셨다. 그때 나는 니 형제님에게, 그가 이 편지를 쓴 날은 내가 주님과 다투고 있던 중이었음을 말해 주었다. 이 이야기는 니 형제님이 편지를 보낸 것이 분명히 옳았음을 니 형제님 자신에게도 확증을 주었다. 이 편지를 통하여 그와 나는 전보다 더욱더 많이 함께 건축되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하게 하셨음을 깊이 확신하였다. 그 후로 니 형제님은 나를 새로 배우는 이로 대하였고, 나는 나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손위 동역자로 그를 존중하고 존경하였다.

초기에는 니 형제님과 내가 할 일이 그다지 많지 않았으므로 나는 종종 그에게 가서 오랫동안 그의 집에 머물렀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 그는 여러 가지 많은 방식으로 나를 온전하게 하였다. 주님 앞에서 나는 우리가 결코 한담으로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음을 증언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뛰어난 은사인 니 형제님은 언제나 나를 온전하게 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 니 형제님은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는 내게 1세기부터 현재까지의 교회사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는 거의 모든 교파의 창시자들의 전기를 나에게 교통해 주었으며, 속생명과 교회생활과 주님의 움직임에 관하여 나를 온전하게 하였다.

한 흐름

어느 날 니 형제님은 내게, 나의 가족과 함께 상하이로 이사 와서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해서, 그와 다른 동역자들이 부담을 받게 되었다고 말해 주었다. 그는 내게 이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도록 요청하였다. 내가 그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서 그것에 대하여 기도했을 때, 주님은 사도행전 때부터 이 땅에서의 그분의 움직임에는 오직 한 흐름이 있을 뿐임을 내게 보여 주셨다. 이 흐름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안디옥으로 확산되었고, 안디옥에서부터 유럽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주님은 중국에서의 그분의 움직임을 위하여 두 흐름이나 두 근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나에게는 중국 북쪽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 니 형제님을 만나러 가기 전에 나는 1933년 여름에 아가에 관한 철저한 연구를 인도하였다. 그러나 내게 중국 북쪽에 대한 분명한 부담이 있었지만, 니 형제님과 동역자들은 내가 상하이로 옮겨 와서 그곳에 머물면서 그들과 함께 일해야 한다고 느꼈다. 이때에 주님은 내가 상하이로부터 시작된 한 흐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내게 보여 주셨다. 나는 상하이로부터 그 흐름이 그 나라의 북쪽과 다른 부분으로 나아가리라는 것을 보았다. 그러므로 나는 상하이로 이사하여 그곳에 머물기로 결정하였다. 그때 이후로 나는 계속 한 흐름 안에 있어 왔다. 나는 이것이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그분의 흐름이요 이 땅에서의 그분의 움직임이라는 것을 참으로 분명히 보았다.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자면, 나는 벧엘을 발견했다.

흐름을 책임지는 사역

나는 주님의 흐름 안에 있다는 것과 이 흐름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나는 또한 그 흐름을 책임지는 사역이 있음을 인식하였다. 이것을 본 결과 나는 나의 모든 과거의 지식과 체험을 잊기로 단호하게 결정하였다. 내가 아가에 관하여 상세한 연구를 인도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내게 약간의 지식이 있었

고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었음을 가리킨다. 나는 형제회와 함께한 칠 년 반 동안 성경에 대하여 매우 많은 것을 배웠었다. 나는 예표들과 예언들과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알고 있었다. 더욱이, 한 교회가 나를 통하여 세워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땅에서의 주님의 흐름은 하나여야 한다는 것과, 이 흐름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과, 이 흐름을 수행하는 한 사역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나는 내가 흐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과 그 흐름을 책임지는 사역 아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초기의 여러 해 동안 우리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내가 결코 집회들 가운데 전한 메시지들과 다른 어떤 것을 별도로 말하지 않았음을 증언할 수 있을 것이다. 니 형제님이 있다는 사실의 관점에서, 나는 나의 모든 관념들과 지식들과 체험들을 내려놓았다. 니 형제님은 그 흐름을 시작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이었으며, 그는 그 흐름을 수행하는 사역을 맡았다. 나의 의견이 전혀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 후 십팔 년, 혹은 십구 년 동안 나는 많은 것을 하였다. 그러나 모든 것은 나의 의견을 따른 것이 아니라 니 형제님의 인도를 따른 것이었다. 나는 결코 나 자신을 따라 어떤 것을 공급하지 않았다. 나는 오직 니 형제님이 전한 메시지들을 공급하였다. 그 수년 동안 나는 결코 나의 의견이나 관념을 표현하지 않았다. 대신 나는 전적으로 니 형제님을 따랐다.

주님은 이 땅에서의 그분의 움직임 안에서 흐르고 계신다. 이 흐름은 당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흐름을 책임지는 한 사역이 있다. 지금 이 문제는 나와 매우 많이 연관되어 있는 까닭에 내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가 어렵다. 만일 내가 아직 중국 본토에 있고 그 흐름이 니 형제님의 사역과 관계되어 있다면, 내게는 더 많이 말할 근거가 있을 것이다.

기둥이 되기 위하여 온전하게 되는 비결

이제 주님의 움직임을 위한 강한 기둥이 되기 위하여 철저히 온전하게 되는 비결에 대해 말하겠다. 어떤 형제들은 자신의 관념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하게 함을 받을 수 있었다. 최근에 한 형제는 리 형제님의 사역을 따르고 이 사역의 모든 것을 흡수하는 것만을 안다고 강하게 선포하였다.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은 의견이 매우 많았다. 그들은 자주 "리 형제님은 이러이러하다고 말했습니다. 리 형제님의 말이 옳습니까? 교회가 옳습니까? 바로 일주일 전에 나는 교회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 들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의견이 많은 이들 가운데 아직 한 사람도 온전하게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기둥들로 온전하게 된 이들은 이와 같지 않다. 그들은 어떤 실수들을 보았을 때에도 그것들을 논의하면서 허비할 시간이 없으므로 그것들에 대하여 잊어버린다. 그들은 단지 긍정적인 모든 것들을 흡수하기를 갈망한다.

긍정적인 것들을 즐김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에 의하면, 어떤 것이 자라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면에 대한 필요가 있다. 닭을 예로 들어 보자. 우리 모두는 달걀들과 가슴 부분과 다리는 소중히 여기지만 닭의 똥이나 깃털이나 뼈는 관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똥과 깃털과 뼈가 없으면 닭은 자라지 못한다. 닭이 닭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가 먹는 부분이 아니다. 우리는 달걀들과 가슴 부분과 다리를 누리고 똥과 깃털과 뼈는 잊어버려야 한다. 우리가 닭의 긍정적인 면들을 주목할 때, 우리는 많은 영양분을 얻을 것이다.

나는 로스앤젤레스 교회가 어떤 잘못들을 범했음을 인정하고 내가 실수하였음을 자백한다. 장로들도 이것을 증언할 수 있다. 사람은 다 실수를 한다. 아무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다. 나도 자라려면 실수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실수들은 나의 '똥'이다. 당신이 이것을 먹는다면 당신은 어리석은 것이다. 나는 또한 나에게 '깃털'이 있음을 인정한다. 로스앤젤레스 교회 역시 어느 정도의 '깃털'과 '뼈'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깃털'과 '뼈'와 '똥'이 없이는 로스앤젤레스 교회도, 나의 사역도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당신은 '깃털'을 끌어모아다가, "보라! 이것이 로스앤젤레스 교회이다. 보라! 이것이 리 형제가 행한 것이다. 이 모든 무시무시한 '깃털'을 보라."라고 말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한다면 당신은 로스앤젤레스 교회나 나의 사역을 손상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 당신 자신을 손상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기둥들로 온전하게 된 이들은 당신 못

지않게 총명하다. 그들은 지혜롭다. 그들의 눈은 당신의 눈보다 훨씬 더 잘 보지만, 그들은 부정적인 것에 그들의 주의를 기울이기를 거절한다. 그들은, "비록 리 형제님께 약간의 '똥'이 있지만, 그에게는 매우 많은 달걀들이 있다. 나는 그의 사역으로부터 나오는 '똥'을 관심하지 않는다. 나는 모든 '달걀들'과 '가슴 부분'과 '다리들'을 먹기 원한다. 내게는 '깃털'과 '뼈'에 대해 듣고 있을 시간이 전혀 없다."라고 말할 것이다. 부정적인 것들을 잊어버리고 '달걀들'과 '가슴 부분'과 '다리들'을 즐기는 본을 따르자. 이것이 이번 메시지에서의 나의 부담이다.

당신은 위트니스 리에게 어떤 '똥'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스파이로 애너하임에 있는가? 나는 '똥'이 없이는 살 수 없다. 분명히, 여기 애너하임에는 '깃털'도 있고 '뼈'도 있다. 장로들은 많은 '뼈들'을 만들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만든 모든 '뼈들' 위에 서 있고, 심지어 그 위에서 춤출 것이다. 나는 그것들을 먹을 만큼 어리석지 않을 것이다.

우리 가운데 서너 명은 니 형제님을 매우 가깝게 알고 있었다. 니 형제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완전히 열었으며, 우리는 그의 결점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결점들이 그를 존재할 수 있게 하는 '똥'이라는 것을 인식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상하이에서 '닭'의 '깃털'이나 '뼈'에 집착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였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죽였을 것이다. 나는 결코 그렇게 나 자신에게 손상을 주는 고통을 겪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니 형제님의 사역의 신선하고 영양을 주는 '달걀들'과 '가슴 부분'과 '다리들'을 누렸다. 니 형제님의 사역을 반대하여 큰 소동이 일어났을 때, 나는 내가 니 형제님의 절대적인 추종자라고 말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그의 잘못들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관심하지 않았다. 나는 다만 니 형제님이 나에게 베풀었던 온전하게 함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알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니 형제님으로부터 받았던 양육을 알고 있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 안에 있을 때에도, 나는 주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하시도록 니 형제님을 사용하셨음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니 형제님의 사역이 없었다면 나는 결코 오늘의 내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교회 안의 누군가가, "이것은 '닭'인 위트니스 리로부터 나온 '깃털'이고, 이것들은 애너하임 교회의 '뼈들'입니다. 당신은 애너하임 교회가 잘못을 범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라고 말하며 그의 호주머니를 '깃털'로 채우거나 '똥'을 찾는 데 시간을 보낸다면,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이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당신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그릇된 곳에 있다. 위트니스 리도 애너하임 교회도 당신이 그것들을 드러낸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위트니스 리가 무엇을 하든 위트니스 리는 위트니스 리이다. 교회가 순수하든 순수하지 않든 교회는 교회이다. 애너하임 교회도, 나의 사역도 폭로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반대로, 우리는 그것을 소중히 여긴다. 그러나 우리를 드러냄으로써 당신은 무엇을 얻는가?

흐름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감

주님은 이 땅에서 무언가를 이루시기 위해 여전히 일하시며 움직이고 계신다. 주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는 한 흐름이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 무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활동들 중에 주님의 움직임의 흐름이 있어야 한다. 틀림없이 당신은 주님께서 땅에서 여전히 살아 계시고 움직이고 계시며 일하고 계심을 믿는다. 원칙적으로, 이 땅에는 주님의 한 흐름이 있어야 한다. 성경은 항상 오직 한 흐름이 있어 왔음을 계시한다. 아벨, 노아, 아브라함과 함께한 한 흐름이 있었고, 구약의 끝에도 여전히 한 흐름이 있었다. 그것은 신약에서도 동일하다. 주님께서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 계시고, 움직이고 계시며, 일하고 계시므로 또한 오늘날 이 땅에도 오직 한 흐름만이 있어야 한다.

이 땅에 오직 한 흐름만이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흐름이 있는 곳을 찾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해야 한다. 그것을 찾기 위해 여행하고 연구하는 것은 틀림없이 가치 있는 일이다. 나는 맹목적으로 어떤 것을 좇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그 흐름 안으로 뛰어들기 전에 나는 철저히 찾고 또 연구하였다. 나는 나의 직장

과 나의 가족과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을 포기했다. 나는 나의 희생을 헛되게 만들기를 원치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시간을 들여 그 문제를 연구하였다. 결국 나는 이것이 그 흐름임을 확신하였고, 사십오 년 이상 동안 나는 그것에 대해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한 흐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흐름이 있는 곳을 발견한 후,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지식과 관념과 이해와 관점들을 잊어버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흐름에 관한 한, 그러한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다소 늦은 말이었다. 그들은 시작부터 이 말을 했어야 했다. 나는 니 형제님에게 상하이로 이사하여 그들과 함께 일하고 형제님들로부터 배우겠다고 말한 바로 그날부터,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유일한 사역을 따랐다. 나는 그 결정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그 선택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한다! 그 누구도, 이 길로 돌이킨 결과로 내가 얻은 양육과 온전하게 함을 측량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형제들도 동일한 것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똥'이나 '깃털'이나 '뼈'를 관심할 시간이 전혀 없다. 오직 이 흐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흡수할 시간만 있을 뿐이다. 이것이 주님의 움직임을 위하여 유용한 기둥들로 온전하게 될 수 있는 합당한 길이다.*(창세기 라이프 스타디, 88장, 1195-1202쪽)*